

유가 폭탄 ... 하반기 성장률 4%도 어렵다

전경련 '올 경제전망 세미나'

소비자 물가 목표 상한선 3.5% 크게 상회

수입 급증... 무역수지 130억달러 흑자 난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경기 침체,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성장률 4% 후반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경련이 28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들은 하반기 우리 경제는 미국, 유로 지역의 주택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가 등으로 투자와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선진국 경제가 연초 예상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석연구위원은 또 "국제 금융시장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대응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불안심리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나, 완전한 신용경색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며 "달러화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대미 투자자금 유입 저조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종건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했던 연간 4.7%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약화될 전망이다. 설비 투자 회복세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라며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목표상한선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이라

고 말했다.

노성호 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최근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흑자전환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유가로 인해 올해 원유 도입액은 지난해보다 218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 실장은 무역수지 관리를 위해 "정부는 환율을 적정선에서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한미FTA를 조기에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배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반기에도 석유수출기구(OPEC)의 공급 조절 전략과 시장영향력 확대, 투기 및 자산헷집 투자가 등이 지속돼 유가가 강보합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두바이 원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125~130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광주 주유소 10곳 중 1곳 경유값 ≥ 휘발유값

순천·여수는 70%이상

경유, 휘발유값 앞질러

광주지역 주유소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은 경유값이 휘발유값과 동일하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순천과 여수를 중심으로 경유값이 크게 뛰면서 22개 시·군 가운데 9곳의 평균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에 따르면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가격 정보를 공개중인 광주 지역의 주유소 197개 가운데 27곳(13.7%)은 경유값이 휘발유값과 동일하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앞지른 곳은 11곳으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구별로는 북구의 주유소 5곳이 휘발유값보다 경유값이 높았으며, 서구와 동구도 기름값이 역전된 주유소가 각각 4곳, 2곳에 달했다.

또 북구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동일한 주유소도 9곳에 달하면서 관내 57개 주유소 가운데 14곳(24.6%)의 경유값이 휘발유값과 동일하거나 높았다. 이 가운데 북구 K 주유소의 휘발유값은 1.14원, 경유값은 1.14원 반면, 경유값은 1.14원 1천879원

으로 무려 30원이나 비쌌다.

기름값 역전 현상은 전남지역 주유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전남의 경우 여수와 순천 등 9개 시·군의 평균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1.14원 1천874원인 반면, 경유값은 1.14원 1천884원으로 10원 비쌌다. 순천도 경유값이 1.14원 1천879원에 달하면서 휘발유(1.14원)에 비해 평균 5원이 높았다.

특히 여수는 전체 주유소 69곳 가운데 62곳의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앞지르면서 10곳 중 9곳이 기름값 역전 현상을 보였다. 순천도 전체 83개 가운데 63곳(75.9%)의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높았다.

이밖에도 장흥은 1.14원 1천872원으로 휘발유(1.14원)보다 평균 9원이 비쌌으며, ▲영암(7원) ▲신안·진도·곡성(5원) ▲광양(4원) 등의 기름값 역전 현상이 뚜렷했다.

한편 이날 현재 전국의 주유소 9천369곳 가운데 2천697곳(28.7%)은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에서 기름값이 역전된 주유소가 90개에 달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강릉시 71개, 수원시 70개, 마산시 58개 등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저소득층, 병원·교육비에 운다

가계소비 지출 1, 2위 차지 ... 소득 증가를 추월

최근 5년간 저소득층의 가계소비 지출 중 병원비와 교육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이들 지출항목이 소득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며 저소득층을 더욱 궁지로 내몰았다는 의미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4분기 중 2인 이상 전국 가구 소득1분위(하위 20%) 저소득층의 월평균 가계소비 지출 10개 항목 중 보건의료비가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 1·4분기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9만 7천308원으로 5년 전인 2003년 1·4분기의 6만1천113원에 비해 59.2%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계소비지출 평균 증가율이 23.8%였음을 감안하면 보건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소득증가율은 같은 기간 24.7%로 보건의료비 지출에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건의료비 주요 항목인 의약품·보건의료용품·보건의료서비스 중에선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증가폭이 가장 컸다. 5년 동안 3만4천723원에서 6만5천253원으로 87.9%나 늘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병원외래·병원입원·치과진료 등이다.

또 교육비는 5년간 9만2천745원에서 13만1천812원으로 42.1% 늘어나 10개 가계소비지출 항목 중 증가율 2위를 차지했다.

교육비는 납입금·교재비·보충교육비로 구성되는 데 이중 가장 필수지출인 납입금이 75.7%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납입금은 사립대·국립대·유치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기업대출 연대보증 없애야”

금융원장 “신용도 따라 대출 바람직”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대출의 경우 부작용이 적고 실행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업무 관행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보증에 의존하는 기업대출 관행도 바꿀 것을 주문했다.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축소되면 신용도가 대출 금액과 금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기업들은 신용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대출 재원이 부족한 은행들이 특약예금, 양도성 예금 증서(CD), 은행채 등 고비용 자금을 조달해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근래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다”며 “후순위채는 근본적으로 부채로서 조달 비용이 높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자본 적정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발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이 경기 둔화와 함께 부실화되지 않도록 내부 여신 방침을 재검토하고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 및 기업경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투자은행 업무를 확대하고 해외의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여름 수영복 80% 할인 판매합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이벤트홀에서는 오는 6월1일까지 '여름 비치 수영복 균일가전'을 열어, 지난해 팔았던 수영복을 70~8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주택거래 신고 거부땐 과태료 500만원

9월부터 ... 지자체장에 대금지급 증명서 제출 요구권

9월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대금지급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쉽게 틀통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초 공포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가 2006년 11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작년 7월에 각각 제출했던 개정안을 묶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두고 있으나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지금은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무통장입금 증명서 등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여해 非주택거래 신고지역과 형평을 맞췄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허위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태료로 내야 한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국민연금 신용회복 지원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약 29만명이 그동안 낸 국민연금으로 빚을 갚아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뉴 스타트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용불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0월 말까지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는 그동안 낸 국민연금의 50% 이내에서 돈을 빌려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채무에 대해 연체 이자는 전액, 상각채권은 최대 50% 감면해 준다. /연합뉴스

청년 실업난 속 中企 '구인난'

20대 후반 백수 100만명 ... 중기 96% 인력 못구해

20대 후반 백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년 실업률이 7%를 웃돌지만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중소기업 351개사를 대상으로 인력부족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96.0%가 '원하는 인재를 뽑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직무로 영입직(21.7%)을 가장 많이 뽑았다. 생산/현장직(11.9%)과 연구개발직(11.3%), 엔지니어, 기술직(10.7%)도 일손이 떨어졌다. 경력 측면에서 보면 '1~3년차'(40.1%)와 '신입'(35.6%) 인재를 뽑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젊은 피'가 부족하다는 것.

이처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에 직접적인 차질이나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는 중소기업이 74.5%에 달했다.

중소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은 대개 '관계자의 주변인맥을 활용'(46.9%)하는 것이었다. 일부는 '헤드헌팅 업체'(10.7%)거나 '사내 추천제'(7.7%)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별 대책이 없다'(13.1%)고 토로한 곳도 적지 않았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인포데이터(주) 전남본부	광주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9	062-360-0503
서빈산업(주)	[주5일]신카드 상담원(콜센터 확장)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29	062-224-7238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정보통신실 조교	대졸/경력무관	2600~2800	05/30	062-530-3701
세정산업(주)	경리, 회계 실무자(더존프로그램가능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61-371-2333
뷰티코리아(주)	정규직 사무관리 경력사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5/31	010-9209-9688
한글과 컴퓨터 CO교육사업부	컴퓨터 방문 지도교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2	062-373-5221
(주)에이나라	컴퓨터 사무기기 A/S 시원 추가	고졸/경력1년	1600~1800	06/03	062-224-6073
그린토건(주)	토목공무 및 토목현장소장	초대졸/경력3년	3400~3600	06/04	062-942-4080
에듀플러스(통신직)	학습 매니지먼트(정신, 학습, 행동관리)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6/04	062-710-7909
(주)엠에프코리아	웹디자인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1600~1800	06/05	062-513-8957
호남pc프라자	lg파워콤 인바운드 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07	062-444-2233
대명하이텍(주)	케이불설치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7	062-953-6444
(주)성문당	자재관리, 납품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7	062-222-2555
(주)티엠소프트	ERP, 공정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6/10	062-951-0707

(광주잡코리아 052-6210 제공)